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 수입제품, 세율, 관세, 조절, 조하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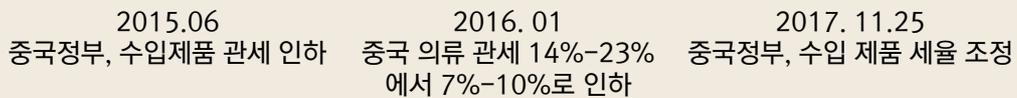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중국, 정부, 수입제품, 세율, 관세, 조절, 조하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핵심이슈
도출

중국 재무부, 일부 수입제품 관세율 임시 조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 재무부, 일부 수입제품 관세율 임시 조정

중국 재무부(财务部)에 따르면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율 조정안이 국무원 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17.3%에서 7.7%로 하락하였다. 조제 분유의 관세율은 20%에서 0%로 하락하였으며 문어 및 위스키의 관세율은 10%에서 5%로 하락하였다. 재무부는 수입품 관세율 조정의 이유로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품 소비 증가 추세 및 중국 현지 특색 제품 공급 부족을 들었으며, 해당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입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국민들의 수입제품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 수입품 관세를 인하해 왔다. 적용 품목은 식품, 보건품, 약품, 화장품, 잡화 등 187개이며, 2015년 6월부터 의류, 화장품, 기저귀 등의 관세율이 평균 50% 하락하였다. 또한 2016년 1월부터는 의류 등의 관세율이 14%-23%에서 7%-10%로 하락하였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의 수입품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세를 점차 인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평균 관세율은 17.3%에서 7.7%로 하락하였다. 영유아 제조품의 관세율은 20%에서 0%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영유아 스낵의 관세율은 15%에서 2%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 영유아 제조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유아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재무부의 일부 수입제품 관세율 임시 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gov.cn/xinwen/2017-11/24/content_5241969.htm

<http://www.chinanews.com/cj/2017/11-25/8385441.shtml>

1. 部分消费品进口关税下调,经济日报, 2017.11.25
2. 下月起部分消费品进口关税调整,羊城晚报. 2017.11.25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